

### ‘다저스의 목소리’ 빈 스킨리 별세

메이저리그(MLB)와 LA 다저스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한 명인 빈 스킨리가 세상을 떠났다.

3일 ‘아이뉴스24’는 스킨리가 전날 향년 94세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저스 경기를 지난 67년 동안 전담 중계해 ‘다저스의 목소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다저스 구단은 스킨리에 대해 “그는 다저스의 목소리 그 이상”이라며 “팀의 양심이자 시인이었고 재키 로빈슨, 샌디 쿠피스, 커크 김슨을 거쳐 클레이튼 커쇼까지 팀 영광의 시대를 기록해왔다”고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스킨리는 지난 1927년 뉴욕주 뉴욕에 있는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포드햄대학교를 졸업한 뒤 방송에 입문했고 1950년부터 브루클린 다저스 경기 중



▲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브루클린과 LA 다저스 경기를 중계한 빈 스킨리 전 캐스터가 지난 2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사진=cbssports.com

계를 시작했다.

다저스가 연고지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긴 1958년에도 스킨리는 함께했고 2016년 10월 2일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를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 놓을 때까지 67시즌 동안 중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는 공중파 방송인 CBS와 NBC에서 MLB를 비롯해 골프와 미국프로풋볼(NFL) 중계도 담당했다. 스킨리는 1982년에는 야

구 중계 캐스터로는 6번째로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회했다.

2016년에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도 받았다. 자유의 메달은 미국 국가 안보를 포함해 세계 평화, 문화·스포츠 분야에서 뚜렷한 공헌을 남긴 미국인에게 주는 시민상이다.

### 최지만, 내년 시즌 트레이드 될 듯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사진)이 트레이드를 피했다.

4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탬파베이와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최지만 트레이드를 놓고 꽤 심각한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스턴이 제시한 카드가 탬파베이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불발됐지만, 올 시즌 후 최지만의 트레이드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탬파베이가 최지만을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은 것은 최근 그의 성적이 곧두박질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최지만은 2할8푼대의 타율을 유지했다. 플레이오프 경쟁 팀이 이런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최지만은 이후 49타수 6안타로 0.122의 빈타에 허덕였다. 3일 현재 타율은 0.254로 약 보름 만에 약 3푼이 하락했다.

탬파베이에는 1루수 자원이 무려 6명이나 있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탬파베이가 플레톤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지만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이다.

최지만은 다음 시즌 후 자유계약(FA) 신분이 된다. 최지만의 몸값은 지금의 320만 달러의 2배 이상 오를 것이 확실하다. 스몰마켓인 탬파베이는 최지만에게 그만큼 돈을 줄 여력이 없다. 최지만이 내년 시즌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사진=twitter(RaysBaseball)

### 2026 월드컵 본선 진출국 48개국으로 늘어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본선 진출의 문이 크게 넓어지면서 한국 축구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아시아 축구연맹(AFC)은 전날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 월드컵의 본선 진출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달라질 아시아 예선 절차를 발표했다.

아시아의 본선 출전권은 4.5장에서 8.5장으로 크게 늘어나, 최대 9개국까지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설 기회가 생겼다. 아프리카도 두 배 가까이(5장→9.5장) 쿼터가 늘었다. 유럽은 3장(13→16장), 남미는 2장(4.5→6.5장), 개최국이 포함된 북중미는 3장(3.5→6.5장), 오세아니아는 1장(0.5→1.5장)씩 더 출전권을 가져간다.



달라진 아시아 예선은 먼저 FIFA 랭킹 아시아 26~47위인 22개 팀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맞붙어 11개 팀을 가리는 1차 예선으로 시작된다.

2차 예선에 진출한 11개 팀과 아시아 1~25위 팀을 더해 총 36개 팀이 경쟁한다. 객관적 전력상 한국은 2차 예선부터 참가하게 된다. 4개 팀씩 9개 조로 나뉘

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씩 18개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3차(최종) 예선은 6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조 1·2위에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티켓을 다툰다.

기회가 늘어난 만큼 한국 축구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si.com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